



책머리에 ▶ 2

#### 권두논문

분단43년, 반공이데올로기와 민중의식 ▶ 박현체 ▶ 49

#### 특별기획좌담

## 북한에서는 우리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300매)

▶ 조동걸, 노래돈, 안병욱, 도진순, 한홍구

#### 특집

### 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정과 그 성격

미국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 친미파 ▶ 주진오 ▶ 64

일본제국주의의 팽창과 조선침략의 성격 ▶ 박양신 ▶ 87

청의 조선 종주권문제와 내정간섭 ▶ 김경기 ▶ 105

러시아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 ▶ 이창훈 ▶ 120

#### 역비논단

고조선은 과연 만주에 있었는가 ▶ 이순근 ▶ 149

장승에 나타난 민중의 모습, 민중의 의식 ▶ 유흥준 ▶ 169

코민테른의 민족·식민지논쟁과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 권희영 ▶ 186

#### 한국현대사의 증언

남로당 지방당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 김문현 ▶ 326

- 남로당 연금회원과 평화선 4기로 연락을 담당했던 김문현의 증언

한국도 연구, 오류·헛점 많다 ▶ 송우혁 ▶ 199

소·비례소파를 분리하는 김재용에 반박한다 ▶ 임규찬 ▶ 218

민족체전의 디딤돌인 민속경기를 살리자 ▶ 주강현 ▶ 311

영국과 농노파의 비극 - 창건상과 원내운 ▶ 김재명 ▶ 134

근현대사에 나타난 언론통제법의

과 실상 ▶ 오동석 ▶ 290

의 조선철학사,

철학사연구에 하나의 자극 ▶ 허남진 ▶ 319

한글에 익한 연구

친수연구 초기 공산주의운동사는 다시 써야 한다

(300매) ▶ 이근영 ▶ 240

- 친수학자 김현미에서 김현수까지 남한 친필유고와 유선책임에 의해 새롭게 고려되던 실마시기

제구성

현상 신문조사

1928년의 학생공산당사건 ▶ 346

- 신사 시회과학연구회원들이 중심이 된 학생운동사건

『조선진사』 전 33권의 총목차 ▶ 370



#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면당위원장 출신 전북도당 산하  
4도(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던  
김문현의 증언

인터뷰 : 김창우(성균관대 4학년)

여기 소개되는 인터뷰내용들은 지금의 단편적이다.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능력부족과, 또한 너무나 긴 세월을 '세상'과 바꾼다. 그가 하루 아침에 기억을 주스러내기에는 역부족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초청한 관하여 지나려 했던 관계는 팔치산에 대한 대이상의 관심을 거두고자 한 것이었다. 최근에 지리산, 팔치산에 관한 수기들이 몇 편이나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40년 동안 물려온 강요당했던 우리의 현실에 대한 탐구의 끊임없는 귀결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기들은 그동안 꼬꼬리만 기장의 한국현대사를 예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 그 역사 자체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가령, 남로당의 청룡성과 박현영 노선의 대항 무자비한 수설과정을 부각시키고, 또한 이현상의 반(反)김일성 성향에 대하여, 당시 미군과의 치밀한 학습이라는 의중성을 고려하자면 이제는 중앙의 정치지도자들의 계보파악에 더우기는 연구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에서 김문현씨의 증언은 당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지방의 실상을 유기적으로 선전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민중들은 무언을 요구했고, 이에 기초한 한민족 대중지도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여 그 행보는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던져 보여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지방의 실상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들의 지방을 살피고 있다.

문(김창우) :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은 매우 우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소박히 그간의 선생님의 경력을 들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해방 직후의 지방차원의 민중운동의 실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연구자들 사이에 드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삼십 세가 넘어 해방정국의 와중에 뛰어들어 지방의 건준과 인공에서 활동하시고, 계속적인 체포, 투옥 속에서도 보도연맹의 가입을 거부하신 것하며, 6·25 직전 야산대활동과 6·25 당시 점령지에서의 활동, 이후 팔치산투쟁에 참여하셨던 것은 단지 선생님의 개인사적인 측면에서보다 당시 운동의 실상과 그 진행을 현재에 있어 재구성하는데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해방전까지의 선생님의 성장배경과 생활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김문현) : 저는 1913년에 남원군 산내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보통학교 6년, 목공학교 3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산내) 목공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구례 화엄사와 여기 지리산 우리집에서 목기 짹는 일을 한 5년 했지요. 그런데 내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서 집에서 한문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 덕분에 3년째 광주공업학교에서 한문선생을 1년정도 했지요. 그 후 194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고향에서 면서기를 했습니다. 내가 쉽게 면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면장(조선인)이 부친의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서기하면서는 한글독본 등의 교재를 가지고 독서회를 조직해서 주민들의 글자 깨우치기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 건준 가입에서 조선공산당 입당으로

문 : 해방 직후에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활동 경위와 건준 내부구성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 8·15직후 세가 건준에 들어갈 때는 뜻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었어요. 진보적이던 내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 인민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면 인민위원회에서 총무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면 인위(인민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총 8개 부서에 20명 가량이었습니다. 위원장 1명(최병하), 부위원장 2명(김용태, 황경태 — 임산에서는 군당 선전부에서 활동), 그리고 각 부서를 총괄하는 서기장 1명, 제가 부장을 맡은 총무부(각 부서 사무관찰), 또 재정부, 상공부, 서무부, 산업부, 노동부, 농민부와 학교선생 출신을 많이 지정하여 간부학교를 운영하던 간부부 등 8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에 인위가 조직되어서 간판을 뿐이고 있는데 미군농들이 앞잡이 경찰들하고 차를 타고와서 간판을 데어버리기에 그놈들이 돌아간 뒤에 다시

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 선생님은 당시 면에서는 식자총에 속하셨군요. 해방전후에 선생님의 활정도는 어떠했습니까?

답 : 해방직후만 하더라도 가산은 논이 100여 마지기, 밭이 30마지기, 임야가 20정보가량 되어 면에서는 상당한 부농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공산당에 입당할 때는 출신성분은 부농이었지만, 사회성분은 노동자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6·25조국전쟁' 때는 빨치산투쟁을 했다고 해서 군당조직위원회에 빙민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문 : 활동정도에 따라 출신 규정이 달라지기도 하는군요. 여하튼 선생님의 서론이 넘어 본격적이 사회운동을 시작하신 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조금 늦게 시작한 걸로 생각됩니다. 혹 특별히 영향을 받은 친구나 책같은 게 있었습니까?

답 : 사상적으로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중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일제 때 학창시절 써클을 조직하여 배일운동을 하다 진주고보, 보성고보 등에서 퇴학당한 경력도 있는데, 6·25 때에는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생각나는 책은 좀 나중 일이긴 하지만 여온옥이라는 친구한테서 빌린 일본의 가와가미 하야이가 쓴 300페이지 분량의 벤피론(貧乏論)을 보았지요. 내용은 대충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끝내는 승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온옥이라는 친구는 연희전문 출신인데 남로당 합양군 마천면당 위원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48년에 투옥되어 있다가 6·25 때 경찰이 후퇴할 때 대전감옥에서 살해당했지요.

문 :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때는 언제가요? 그리고 입당 후 당내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45년 10월입니다. 그때 오르그(조직책임자)가 군당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권유했지요. 입당할 때에는 앙케이트를 통과하고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은 당시 33세로서 앞서 말했던 면당위원장이던 여중구와 당시 41세로서 산내면 인민위원장이던 혁명하가 서 주었습니다. 조공가입 후 면당부위원장은 맡았었고, 다음 해부터는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문 : 8·15 해방에서 6·25 전쟁까지를 정치정세의 흐름으로 나누어 본다면 대략 몇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기가 8·15 직후로부터 그 해 12월 말의 모스크바 3상결정 발표까지, 둘째 시기는 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 휴회까지, 세째 시기는 46년 10월 인민항쟁 때까지, 네째 시기는 47년 10월 제2차 미쓰공위 휴회까지,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시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매시기에 어떠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는지,

간단히 개괄해 주시죠. 이후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죠.

답 : 막부 3상회의가 발표될 때 여기서는 신탁통치 결사반대 하라고 당에서 순로건이 나와서 빠라도 붙이고 세포들을 각 기관에 침투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46년도 초부터가 갑자기 지지하라고 해서 각 리(里) 세포위원장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의아심을 품고, 면민들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라도 붙이고 세포회의에서 신탁통치가 아니라 후견체이다. 5년간 후견체로 우리 조국이 자주국가의 토대를 닦을 때까지 원조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교양'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신탁통치 결사반대 시위를 할 때는 면민들이 전체가 다 대열에 참가했었는데 둘째에서 절대지지 시위한다니깐 시위대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학습회를 통해 이해를 시켰는데 각 리 세포단 위로 세미나를 조직해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군당 오르그가 나와서 후견체와 타치의 차이를 설명해 주더군요.

그런데 1차공위가 휴회되었을 때는 소련의 붉은군대는 해방군이고,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군대라는 당의 지시가 나와 그렇게 교양을 주었습니다.

46년 10월 인민항쟁 때는 미군이 각 면을 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못들어 오게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고 전신을 차단하고 했습니다. 이웃 동면에서 우리 면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도 했지요. 46년 말부터는 '당원 3배가, 5배가' 운동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정권 수립시에는 '망국적인 단독정부 결사반대', '미제국주의 군대 조속히 철수하라'는 걸로 투쟁을 했지요.

문 : 그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1차 미쓰공위 휴회 뒤에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군대로 교양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것과 관련해서, 46년 중반기 에 남로당은 수세에서 공세로, 퇴거에서 진격으로 돌진이라는 소위 "신전술"을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전술변화를 지시받으셨습니까?

답 : 여기서는 지시도 안 받고, 그러한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 : '신전술' 채택이라는 게 전당적으로 내려진 것인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면 46년 11월의 좌익 3당 합당을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 : 여기는 농촌이어서 나쁜 당은 전혀 없었고, 조선공산당이 그대로 이름만 남로당으로 바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3당합당과 당원배가운동 후 47년부터는 남로당이 3·1절 남대문 충돌사건,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을 전개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총파업에 가담했나요.

답: 당시 47년 '3·22 24시간 총파업' 때는 군당에서 박종태라는 지도원이 나와 지도하였습니다. 면사무소, 학교, 지서 등에 민청원들을 동원해서 출근을 못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한 50명 가량이었는데 한 개 청사에 약 10명씩 파견했습니다. 그 날 충돌은 없었고, 주재소 순경놈들이 공포를 쏘며 위협을 했지만 여럿이 달려들어 뛰어놓고 그 날 완전히 24시간 총파업을 했습니다.

#### 세포회의

문: 면당 활동도 기본적으로 세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겠죠? 세포회의는 어떤 체제로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것과 아울러 조직활동 전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당시 면 전체에서 세포회의를 주 1회씩 했습니다. 그때그때 당에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했지요. 면소재지는 면당위원장이 입회를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면에서 지도원들을 보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락에 세포책들이 있긴 하지만 회의 때는 면당에서 입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포회의는 면 전체가 같은 날에 열리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마을입구에 민청원들로 피케(보초)를 서너 군데 세워 놓습니다. 각 부락에 대원이 5명이면 좌우간 세포가 조직되니까 세포가 10명 되는 데도 있고, 15명 되는 부락도 있습니다.

회의는 대개 면의 각종 사회단체 조직이나, 당조직문제를 주로 했는데, 우리 집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감시가 심할 때 — 마을에는 대한청년단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 는 야외에서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허가 집회라 해서 그냥 3~5명만 모이면 규정포고령 위반혐의로 연행해 갔습니다. 저도 서너차례씩 들어갔다 나왔는데, 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건 47년 8월에서 48년 4월까지이고, 그 뒤 48년 9월에서 이듬해 9월까지 옥살이를 했지요.

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록(세포회의, 면당회의 등)은 면당에 1부, 군당에 1부만 보고(보관)되고, 그것을 군당에 전달할 때는 면에서 오르고기 과정되어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하당 시절의 오르고기는 주로 지하당 활동의 원칙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전달상황은 면당 위원장과 군 오르고밖에 몰랐습니다. 당시 면당의 역할은 군당 오르고가 나와서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는데 '강제공출 반대하라', '악질경찰 숙청하라', '매 때리는 선생 쫓아내라'라는 슬로건 밑에 벽화를 살포하거나 벽보 붙이기, 통신망 절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 세포에는 공장세포, 기두세포(개별적 자유직업 당원), 비밀세포 등이 있다는데, 이 지역의 경우 특수세포, 즉 관공서나 타정당에 들어간 세포가 있었습니까?

답: 우리 면에서는 면사무소에 인원이 많으니까 해당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우리 동무들이 많이 순경으로 있었고, 지서 같은 데는 인원이 적으니까 세포 조직은 못하고 프락치를 넣었습니다.

문: 세포지도기관으로 세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조직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책을 보면 면 위원회 위에 면당 총회가 있던데 어떻게 조직되는 것들입니까?

답: 3명으로 조직된 것은 분(分)세포라 했고, 5인 이상이면 세포라고 정식 인정되었습니다. 리에서는 20인 이상이면 세포위원회라 했지요. 그리고 그 대표인 세포위원장은 부락에 리단위로 있었습니다. 면의 20인 이상의 세포일 때, 그 대표는 세포위원회위원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세포들이 모두 면에 나가서 전체 세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리 세포는 그대로 있고, 면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소재지 세포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민청, 농맹 등에 배치된 대원 모두 합쳐서 조직된 것이 세포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 리 세포회의에서 회의한 것과 같은 비중으로 면당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면당 총회는 면당 세포회의를 말하고 면위원회는 당, 인위, 농맹, 민청의 기관장들이 회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장은 면당위원장이고요.

문: 한 가지 더 묻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요. 당 활동비는 어떻게 모았습니까?

답: 건준시절에는 기방유지들의 회사금으로 했고, 조공과 남로당 때는 당시 1달에 10원씩 일률적으로 의무납부를 했습니다. 또 당비와는 별도이긴 하지만 모풀사업(원호사업)도 하였습니다.

#### 여순봉기의 돌발성

문: 시기를 좀 뒤어넘어서, 그러나 48-50년 기간에 남한지역에서 벌어졌던 무정유격투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아 드리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지리산의 뱃사골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셨으니까 여순봉기 후 인신자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순봉기 때는 실형을 살고 계셨겠지만,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나요?

답: 그 때 우리 면당원들이 김지희·홍순석 부대가 입산했을 때 뱃사골에서 겹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체계적인 관계는 없었고, 다만 그들이 보급투쟁을

나오면 자리안내라든가 각 부락의 '반동'들을 알려주는 정도의 협조만 해 주었습니다. 이는 인민 속에 있는 당조직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은 까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면 동지들이 그들을 만나서 동지가 동지를 칠 수 없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한 얘기를 나중에 전해들었습니다.

김지희, 흥순석은 저기 반선(伴仙)에서 전사했는데 조복애(경남도여행위원회  
장과 동명이인)라고 김지희 애인이 생포가 되어서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와 가지고 심한 고문으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징역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거기서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흥순석에 대해서는 그의 외삼촌하고 누이동생, 생질과 같이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있었는데 밤에 경찰들이 데리고 나갔는데 처형이 되었는지 그 후로는 못 보았습니다.

#### 남·북로동당의 합당에 대한 견해

문: 그럼, 남·북로동당의 합당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선생님께서는 두 당의 합당(49년 6월 30일~7월 1일)에 대해서는 출소하고서야 들으셨겠죠.

답: 합당소식을 듣고서 내가 가졌던 생각은 당이 합당이 되면 이제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조국통일을 이루려면 평화적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해방투쟁이 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힘이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것이었지요. 합당이 되면 반드시 '김일성동지'가 당 수령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은 적들 손아귀에 있고, 그래도 북조선은 해방지구니까. 그 때는 내가 선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정서를 직접 받아보진 못했지만 구당원으로서 집에 있으면서 평양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문: 남·북로동당의 합당이 적어도 당시 활동가들에게는 내전의 가능성을 전하게 시사했던 것 같군요. 합당 당시 남북로계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답: 여기서는 북로계 출신이 없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휴전과 더불어 단행된 박현영의 숙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박현영의 처단은 좌우간 당연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박현영이 '미제의 간첩'이었다는 얘기는 대전감옥에 있을 때, 김윤회라고 경남도당 빨치산으로 53년 8월 경에 아주 절고 '발전성'이 있는 동무가 잡혀왔는데 그 동무가 박현영은 국제간첩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상당히 박현영을 존경해 왔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의 판단이니까 그대로 믿었지요.

####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문: 한때 자기 당의 당수가 간첩혐의를 받고 처단되었는데 이의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군요. 여하튼, 얘기가 자연스레 전쟁기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전쟁은 어떻게 해서 발발했는지, 당시 피신하고 계셨지만 그 때의 분위기로 봐서 6·25의 개전 — 당시로는 내전이겠지요 — 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까?

답: '6·25 조국전쟁'은 남조선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북조선에서 반격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것은 미해방지구에 대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였고요.

그러나 교육된 정치공작원들을 6·25전에 남조선의 해안지대로 많이 파견했습니다. 각 도에 한 5명씩 파견되었으니까 '조국전쟁'의 발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했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인민군이 후퇴한 후에 우리가 입산했을 때 거기서 파견됐던 김용기라는 동무한테 들었습니다. 주로 강동정치학원, 김일성대학, 노어(露語)대학에서 교육받은 동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무들은 조국해방전쟁을 개시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자면 지방에 가서 전쟁에 호응해 폭동을 조직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 사람들에게 도당 정치공작대 선전원이라는 책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직전에 박현영이, 남조선에 노동당원 100만이 있으니까 전쟁 만 터지면 남조선을 사상적으로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김일성 동지'가 그 말을 믿었다가 오산을 했습니다. 제대로 폭동한 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 말도 중앙당 간부부 부부장 '강규찬 동지'한테 들었습니다. 51년 3, 4월경에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에 있는 경남도당에 갔다가 그를 만났었지요.

문: 강규찬은 중앙당 간부라는데 왜 경남 도당에 있었습니까?

답: '강규찬 동지'는 경남도당 소속은 아니지만 후회하다가 경남도당 간부를 하고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남도당부장들도 있었고, 인민군 군관들도 많이 참석한 "당·군관합동회의"에서 인민군들이 후퇴한 후의 총결산 경과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규찬 동지'가 박현영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중앙당 간부부 부부장이라고 말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실시해야겠다고 하면서 입산해서 월북을 주장했던 군관들의 당중을 회수하고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강규찬 동지'가 인민군들의 당중을 회수하고 무장을

해제한 이유는, 당시 평양방송에서 '김일성 동지'가 월북못한 동무들은 남조선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거역하고 월북하다가 만인적들한테 토벌을 당하여 잡히거나 자수를 하게 되면 그 '고귀한' 무장과 당중을 회수당할 것이 아니라, 벌써 월북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면서 그대로 잡행을 했는데, 인민군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일성 동지'한테 얄은 당중이고 무장인데 일개 간부한테 배앗길 수 없다고 해서지요. 그러나 결국은 빨치산에 편입한 사람들도 있었고 끝끝내 월북한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따로 남부군 내려울 때 함께 다시 있습니다. 그 때 해제된 무장으로 경남도당에 2개의 유격부대를 편제하여 102부대(부대장 김명환—6·25전 오대산 빨치산 출신), 103부대(부대장 차만리—6·25전 오대산 빨치산 출신)로 배치했습니다.

#### 점령지역 정책

문: 그럼 당시 점령지역에서 행해졌던 토지개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토지개혁에 대한 정령을 보면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개 동(洞)이나 리(里)에 5~9명으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 농촌위원회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5~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행한 토지개혁의 시기와 몰수대상,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누가 주관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여기에서는 '농촌위원회'라 하지 않고 '농민위원회'라 했습니다. 그 때 정령은 보지 못했고, 그저 군당에서 오르그가 나와서 대강 이야기를 해주며 토지개혁하라고 구두전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몰수토지 분여 때에는 부락농민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확정했습니다. 토지증명서는 면인민위원장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몰수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나기 전인 50년 5월, 미리 농지개혁을 하면서 토지를 전부 분산시켜 놓았고 토지개혁 정령에 5정보까지는 경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개혁하면서 소작제를 폐지하고 소작료의 1/3도 안되는 현물세를 25%씩 거두니까 농민들은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해방이 조금 늦게 되어서 50년 7, 8월경 10여 일만에 끝냈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당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 때 군 인민위에서 파견되어 온 동무들은 면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면 인민위 동무들한테 위탁을 해서 부락이면 부락, 리면 리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군 인민위 동무들은 총괄적인 지시만 했고, 면 인민위 동무들은 그에 따라 각각의 리에 대해서 각각의 리에 대해서 그에 맞게 하라고 했지요.

으로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군 인민위에서 우리 면에 파견된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토지대장을 보며 주동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은 세포위원장과 인민위원회였습니다. 여기에 농맹위원장, 민청위원장, 여행위원장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조해 준 사람들은 세포원들과 사회단체원들을 합해서 총 20명 가량이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토지의 몰수대상은 몇 정보나 되었습니까?

답: 자작농은 최고 5정보까지 인정을 했고, 그 이상은 몰수하여 빙농, 소작인들에게 경작자 우선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 농업현물세

문: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50년 하반기 작황을 중심으로 농업현물세를 거뒀는데 그 당시 현물세 징수가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만...

답: 현물세를 거둘 때 서숙, 벼, 메밀 등을 전부 날개로 세고, 심지어 나무에 묻은 과실류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인민들의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본놈들 공줄 때에도 그렇게 날개로 세지는 않았는데, 해방(6·25)된 후로 오히려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더 비싸게 가져간다고 인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면당위원장으로서 상부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던지 중앙당까지 보고가 되어서 그 뒤(현물세 완정 후)에 내려온 결정서를 보니까 인민들의 반응이 나쁘다면 현물세 조정을 명령하더군요. 그래서 현물세를 조정할 때는 지주들 소작료보다 훨씬 싸게 했기 때문에 다시 여론은 좋아졌습니다. 그 때 현물세 수집물량은 인민위에서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후퇴하면서 고스란히 국군들에게 넘어가 버렸죠.

#### 의용군 초모사업

문: 50년 7월 6일 의용군 초모사업에 관한 당 결정이 모든 기관에 하달되면서 본격적으로 "17세 이상의 광범한 청장년층을 내상으로 하되 빙농 및 청년은 많이 인입하고, 도단위로 할당된 정모 인원 책임량을 완수하고 변절당원은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라"고 했더는데, 이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평양방송에 의하면 벌써 7월 초에 11만 5천 명이 의용군으로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답: 해방된 지역에서는 선진원들을 부락에 파견하며 "양심적인 청장년은 전선으로", "조국해방전쟁에 충돌기하자"라는 슬로건 밑에 그 뜻을 설명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기호과도를 뽑아 보았습니다. 변절한 당원들은 아주 배격해

버리고 양심적인 부락청년들만 모집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면에서도 한 80~90명 간을 겁니다. 우리 면 의용군은 인민군이 내려갈 때 거기 편입시켜서 그동 강전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문 : 당 결정서가 도단위로 할당을 하거나 의무적 참가를 공식 명시한 경우 보면 강제성을 띠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답 : 지역적으로 강제성은 띠었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지원자만 보냈습니다. 당원이나 외곽단체원들의 일가친척들이 많았지요. 떠날 때 군사훈련은 군(군)에서 의용군을 인솔하러 온 사람이 하루 학교운동장에서 시킨 것뿐이지만 군선에서 회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문 : 전쟁 때 수행했던 인민재판은 누가 주관하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답 : 인민군 위수사령부(산내면, 마천면, 동면, 아영면, 운봉면 지구 관할)가 전선 군대의 후방을 따라 다니면서 '반동'들을 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 면당은 재판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인민재판을 주관한 적이 없고, 50년 7월 우리 면에 기관이 조직되기 전 경남 마천면에서 인민재판은 본 적이 있지요. 그 구역의 면당위원장, 사회단체장들의 참석하에 위수사령관이 가운데 앉아서 반동의 죄상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장들이 논고를 하면 그걸 종합해서 위수사령관이 훈방이나 형량 등을 결정해서 그대로 짐행을 하더군요. '공화국 법률문화집'이란 소책자가 법률근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 할 때는 정치보위부로 대리고 가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산한 뒤로는 당이 직접 관여하여 불순분자 숙청은 도당위원장, 조직위원장들과 각 부장을, 도인민위원회 등 고위참들이 주로 지켜 보는 가운데 결정했고, 결정이 내려지면 복수대가 처리했습니다.

#### 6·25와 당조직의 재건

문 : 6·25가 터졌을 때 당의 입장에서는 빨언적으로 그동안 와해되었던 남한의 당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겠지요. 기록을 보면 전쟁이 나고서 해방지역에 중앙당에서는 각급당에 간부 수십명을 파견하여 각급 당위원회를 구성·조직케 했다는데……

답 : 앞에서 말했던 대로 군당에서 오르그가 5명이 왔었습니다. 당원을 재등록하고 의용군을 모집해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 그런데 당의 외곽단체를 조직함에 있어서 간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도마다 도당학교를 설치해서 약 100명 가량을 수용해 1개월간 단기강습을 실시한 후 때를 지어서 이들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 그 때 나도 50년 7월 20일쯤, 전주에 있던 도당학교에 가서 일주일 강습받고 왔습니다. 그 때 남원군에서 18명이 갔는데 우리 면에서는 내가 가고, 아영면 1명, 동면 1명, 운봉면 1명 등 읍과 면에서 1명씩 갔지요. 강습내용은 주로 정의의 전쟁, 해방전쟁에 대한 강의와 당 외곽단체를 조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그럼 전쟁 당시 재건된 전북도당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 : 예, 도당위원장 아래에 부위원장 2명, 그리고 6개 부서(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노동부, 농민부, 경리부)가 있고, 군당은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3개 부서(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가 있었으며 우리 면당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아래에 부서는 없고 조직선진원, 조직지도원, 선전지도원 등이 있습니다.

문 : 50년 7월 14일에 나온 임시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정령에 의해 7월 25일부터 군, 면, 리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산내면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답 : 우리 면에서는 8월 13일쯤에 실시했을 겁니다. 각 부락에서 5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인민위원장 선출했지요. 대표자 수는 군 인민위원회가 100~150명, 면 인민위는 50~100명 정도였습니다. 면 인민위원장은 단일후보로 각 부서에서 합동으로 추천을 해서 기수로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 단위에서는 없었는데 군 인민위원회 이상에서는 위원장은 지방출신으로 하고, 부위원장 중 하나는 역시 지방출신이 맡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북에서 온 동무들이 맡았습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는 막 해방된 후라 사무능률이 서투르니까 고문격으로 북조선에서 온 동무들이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3개월 예정을 채우지 못하고 후퇴하는 바람에……

문 : 당시 당 규약 제5조를 보면 모자라는 당원을 많이 흡수하기 위하여 농민출신자들을 많이 입당시키라고 되어 있던데, 이 지역에서는 당원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답 : 그 때 양심적인 빙농들을 전부 당에서 흡수하려 했지만 그 때문 해도 위축되어 있어서 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 : 전시에 해방지역 주민들에게 원자무기 사용금지라는 '평화옹호 세계위원회' 지지대회와 '조국통일전선' 지지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걸로 무슨 효과를 좀 보셨나요?

답 : 예, 사실로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평화무기위원회'였고 우리

면에서도 조직되었는데 그건 뭐 '반동'이고 누구고간에 평화를 사랑하는지는  
참가하라고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지요. 각 마을을 돌며 '연관장'부정을  
하며 서명을 받았지요. '평투'는 도당이 51년 7월, 뱠사골로 들어온 다음 조직된 것입니다. 전에 군당과 면당만 우리 지역에 있을 때는 경찰, 군인, 의용  
경찰 등을 잡으면 무참하게 죽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당이 들어온 다음 평  
투'를 조직하고부터는 죽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적들을 생포해도 그저 무장  
해제만 시키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경찰이 전부 토치카로 가 버리고 그 가족만 남아 있기 때문  
에 그 집이나 경찰하숙집 등을 그 부락 세포위원장을 통해서 알아내 산에서  
복수대——군당 산하에 한 30명쯤으로 51년에 조직되어 있었습니다——그  
들이 군인 아닌 경찰집에 밤에 가서 선전편지를 문구멍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원래 복수대는 부락과 연락을 취하면서 적과 악질분자들의 숙청 임무를 떠있었지만 '평투'가 조직되고부터는 자동적으로 그 명칭만 같고서 이와 같은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 후퇴와 입산

문 : 이야기의 순서가 좀 엇갈렸습니다만 뱠치산으로서의 입산경과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 : 50년 9월 중순에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각 지방당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전세가 불리하니 후퇴한다.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할 것. UN군 상륙 때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제거할 것, 이용될 수 있는 군사시설은 파괴할 것, 산간부락을 접수하고 식량을 비축할 것, 입산경험자 및 활동가능한 자는 입산시킬 것, 기타 간부는 남강원도까지 일시 후퇴할 것" 등.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답 : 9월 20일에 군당으로부터 후퇴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낙동강전선에 파견된 인민군들이 후퇴한 것을 보고 당사무소를 비웠습니다. 그 때 집결장소가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우리는(면 기관원들, 군당 정치보위부 부원들) 그 때 차가 있었는데도 적들의 공습이 있어서 걸어서 대전까지 갔는데, 길가의 후퇴하는 인민군들의 참상을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당에 갔더니 벌써 인천에 적군이 상륙을 해서 서울이 끊기고 충청도 지역이 수중에 들어가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전부 입산해서 뱠치산을 조직해 투쟁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그래요.

그 때 둘이와 51년 봄까지, 중들이 모두 전보적이던 자리산 실상사에 면당 본부를 두고 '투쟁'하다가 적들이 산내지서에 본부를 두는 바람에 치열한 전투

#### 리행진과 지산의 노래

제1장에 누그러마	제2장은 부르며 주은
승리에 빠져온다	제3장이 따오른다
제4장은 고창마을	제5장은 고창마을
제6장은 가진우진이다	제7장은 가진우진이다
마을 속에 따뜻한데	마을 속을 넘어넘어
제8장은 산을 넘어넘어	제9장은 사라진 길을 걷고
제10장은 사라진 길을 걷고	제11장은 영을 내린다
제12장은 영을 내린다	제13장은 영을 내린다
제14장은 영을 내린다	제15장은 영을 내린다

를 치른 후 실상사 뒷쪽에 있던 약수암으로 옮겼다가 9월에 뱠사골로 면당본부를 옮겼습니다. 뭐, 산 속에서도 도, 군, 면당의 구별은 뚜렷했습니다.

문 : 입산해서 뱠치산활동을 하다가 많은 비당원들이 입당을 했다는데 대체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당원교양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답 : 입당할 때는 입당 서약서를 써서 군당에 제출하면 군당 조직위에서 심사하여 통과시킵니다. 내용은 대체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마지막 피의 한 방울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원교양사업은 각 기관별로 세미나를 조직해서 중앙당에서 각 도당에 보내준 탐플렛을 갖고 했습니다. 일자무식인 동무들은 국문해독을 시키고, 주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즉 정의의 전쟁이고 해방전쟁이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는 일개 걸출한 영웅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이 창조한다는 것들을 토론·교양했습니다. 교양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책벌하기도 했습니다.

#### 방준표, 4도 연락책 일부부여

문 : 선생님께서는 입산해서 계속 당위원장(면유격대장)을 맡고 계셨습니까?

답 : 51년 9월부터 52년 12월 잠힐 때까지 군당위원장급의 전북도당 산하 4도(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습니다. 내가 4도 연락책 책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지리를 통달했고, 그 전부터 연락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4도 연락책은 군당 위원장급이었는데 당시 도당위원장 '방준표'

동지'가 '4도 연락책으로 임명함/방준표'라는 비준서를 주면서 세계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4도 연락책의 임무는 전북도당 위원장한테 레포를 받아 각 도연락책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락책을 맡을 때만 해도 각 도당들이 이 자리산으로 모여들고 할 때니까 적들의 포위망 때문에 각 도당과 연락이 잘 안되고 그래서 내가 적격자로 되어 맡은 것입니다. 선요원은 나를 빼고 너댓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레포를 써주면 그들이 각각 선 닿는 데에 가서 서로 교환을 해오고 그랬지요.

덧붙여 말해두고 싶은 것은 원래 경북도당 선도 맡았으나 선이 닿지 아니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내 생각으로는 경북도당은 독자적으로 중앙(평양)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연락책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으면 몇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 각 도당 위원장이라든가 각 도당 간부들이 자리산을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유격책 '트(비트: 비밀아지트)'를 거쳐 가야 하니까 손님을 많이 치루었지요. 좌우간 어떤 도당이건 보급사업이 안될 때니까 여름인데도 둑은 담요양복을 해입고 다니고 있어서 내가 둑은 군복 등을 많이 노획해서 가지고 있다가 무장대에 가서 많이 갈아입히고 그랬지요. 또 그들이 올 때는 양식이나 부식도 다 대줘야 하니까 산에 있다가 마을에 내려가 공작을 해다 주었지요. 엊그제나 떡도 주고 개도 잡아주고 소도 잡아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연락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면당에 지시를 하지요.

문: 이현상은 어떤 인물입니까? 혹 김일성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답: '이현상 동지'는 상당히 대중적 인물이었지요. 아량이 있고 참 포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현상 동지'와 만나서는 주로 여기 우리 면에 배치된 적의 동태나 숫자, 면 인민들의 인민성 같은 것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현상 동지하고 김일성 동지하고의 관계는 잘은 모르지만 대개 이현상 동지는 김일성 동지를 절대적으로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회·홍순석의 과오는 '이현상 동지'한테 수습하라는 책임을 준 것으로 봐서 친밀하다고 보았지요. 김지회·홍순석의 과오는 당의 지시없이 경거망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입산해서 이현상 동지 밑에 있던 정치국원(?)이 전북도당에 연락하려고 내 '트'에 와서 해준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현상 동지'는 하여간 영웅적인 투쟁을 했으니까, '자리산 영웅', '빨치산 영웅', 그리고 '조선인민의 충실한 장군'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박현영이 숙청당한 뒤로 스스로 비판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누(累)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49년에 자리산에 온 이현상이 여순봉기의 수습의미도 가지고 있었군요. 도당위원장 방준표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까?

답: 도당위원장 '방준표 동지'는 별명이 '모르겠다'였습니다. 잡혔을 때 경찰이 성명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 몇 살 먹었느냐?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자리산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됐는데 면당 위원장하면서는 도당에 들어서 얼굴을 많이 보았지만 그 때는 도당간부들만 많이 만났습니다. 51년 7월에 방준표 동지가 뱃사골로 들어왔는데 9월에 비로소 만나보았습니다. 도당위원장은 그 때 장질부사로 병상에 누워서 전염된다 고 다른 '비트'를 지어서 도당본부하고 한 500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있었는데, 그 때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잡아보내라 해서 전어, 뱀장어, 등을 등으로 둑을 그물로 많이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처음 보았습니다. 난 도당위원장이라 체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주 조그만 해요. 그래서 그 때는 행군을 못하니까 항상 '황장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업혀 다니고 그랬습니다. 당시 후방사업은 우리 면에서 다 맡아 했는데 도당간부들을 만날 때는 인민들의 여론과 적들의 배치상황, 보급사업을 어디로 잘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 보는 각 부락 세포위원장 또는 복수대 등무들이 나가서 여론을 듣고 왔었습니다

문: 전쟁 당시 날한에서의 빨치산활동은 누구의 총괄지도를 받았습니까? 이승엽이 지도했다고 혹시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 당시는 이승엽의 개인 지시인지 당의 지시인지 우리는 분간 못했지요. 그때 정치위원들은 노어대학생, 김대(김일성대학) 학생들이 주로 왔었습니다. 노어대학은 3년제로 교육과정은 다른 일반대학과 비슷하고, 노어를 주로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공작대를 조직해서 각 군에 나가 교양사업을 했는데 산 속에서는 정치학교를 열어 강연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특별한 교재는 없었고, 강의내용을 종이에 써 가지고 와서 주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정의의 전쟁이란 것,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것을 이야기 했지요.

당시 뱃사골에 도당학교가 있었는데 모든 입산자들은 2주일씩 가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 도당학교 교장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등무'의 부인인데 정치위원들은 전투에는 안 나가고 강의만 했습니다. 강습에서 성적이 좋은 등무들은 각 군당이나 면당에 지도원으로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토벌대와 빨치산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답: 빨치산에 대해 인민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급투쟁한다고, 현물세 받아간다고 하면서 노동의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뒷하게, 산발하듯이 해서 인민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일반 인민들과의 관계는 그들이 완전히 약탈을 해가니까 말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은 부락에 주둔해도 부락민들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리 이탈되지 않았지요. 군인들은 부식물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사 먹지만 '경찰놈'들은 가을이면 말려놓은 꽃감을 다 떼어가고 과실들도 함부로 따먹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중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해 둘 것은 한번은 산청군 삼장면에서 군인들이 370명의 부락민들을 배급준다고 나오라고 해놓고는 전부 학살했어요. 그 현장 조사를 내가 나갔었는데 그 광경은 말도 못하게 처참했습니다. 둘이 갓 저났을까 하는 어린애가 죽은 자기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울고 있었어요. 여자들 부에다 돌을 박아놓고 유방을 총검으로 난자하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중요성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 지방당과 남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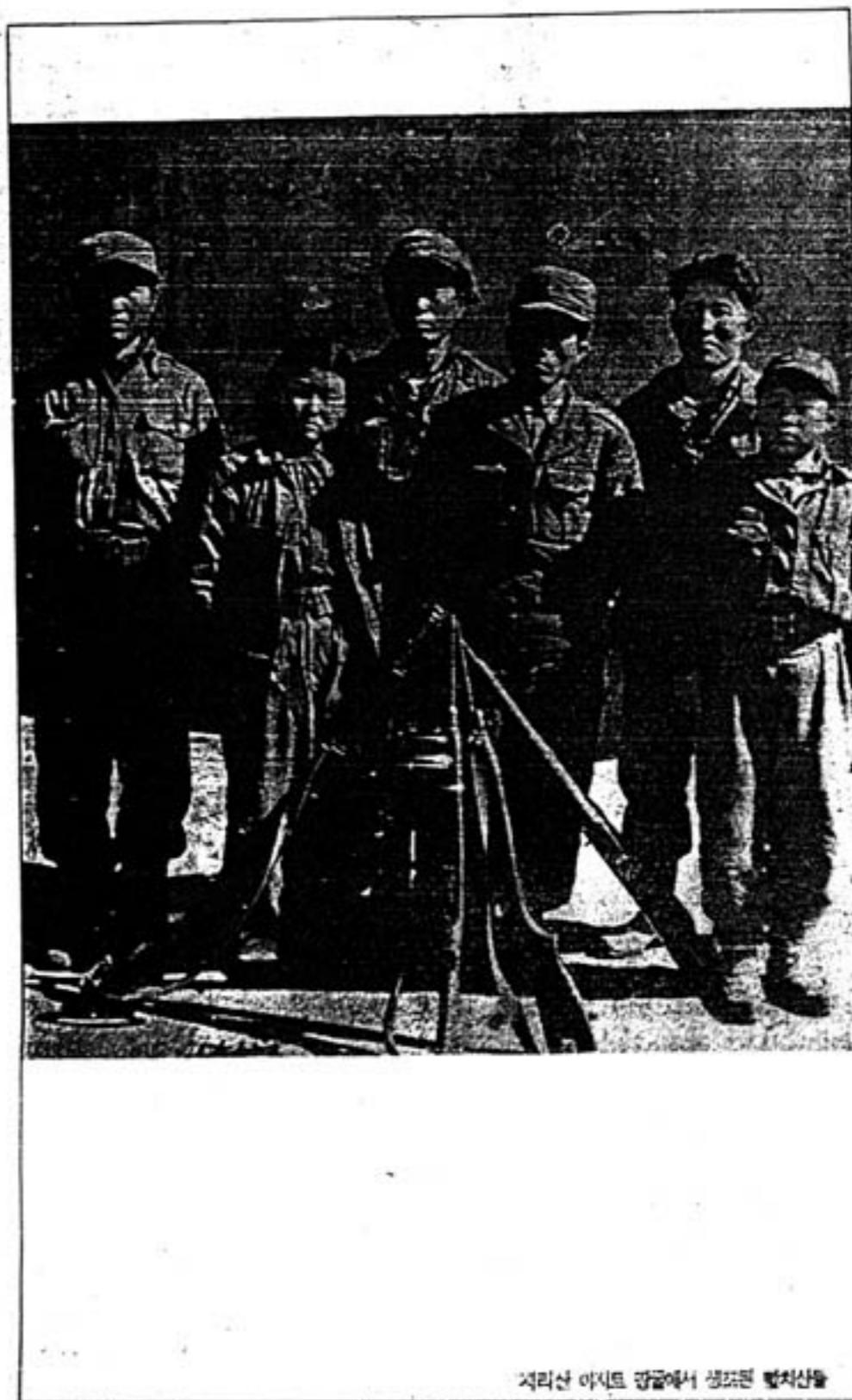
문: 전시에 군대형태로 편제된 지방당과 군대 자체인 남부군은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밭치산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되어 있던데요.

답: 도당사령부는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유격대는 부대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군당 유격대는 무장대가 한 80명 되고, 면 유격대는 무장된 비당원들로 15~20명 되었습니다. 유격대원 중에는 여성대원들도 3분의 1정도 되었었는데, 여성대원들은 주로 모풀사업과 선전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성분들은 대개 6·25조국전쟁 때 의용병으로 나선 동무들, 또 북에서 내려온 공작대 동무들이었습니다.

남부군이 뱡사골 지역에 있었을 때 각 도당, 군당, 면당도 연락이 있었습니다. 청년동맹, 농민위원회, 직행 등 사회단체 전부가 탄압국면을 맞아 산으로 이동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남부군이 각 도당을 통일하려 해도 '이현상 동지'가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인데 그 직위는 도당위원장과 동격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각 도당은 도당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현상 동지가 당시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이란 것은, 남부군이 지리산에 들어올 때 전남도당 선전부장 김용규 동무가 월북하다가 남부군과 같이 입산을 했는데, 그 동무가 51년 8,9월쯤에 뱡사골 정인암에 있던 내 '트'를 거쳐가면서 남부군 생활을 보고 해주어서 알았습니다.

#### 밭치산의 포로교환 대상 제외

문: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트'로가 되셨습니까?



지리산 아시트 관급에서 생포된 밭치산들

답 : 52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당시 각 면에 다 연락책이 있어서 선을 닿고 있었는데, 우리 5명이 밤 1시에 출발해서 우리마을 뒷산에 비트를 정한 다음 2명은 보급투쟁하러 내려가고 3명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명이 불들려서 고문을 하니까 고급 불력책 김문현이 요 뒷산 제피골에 숨어있다고 불었어요. 그래 이 자들이 경계사격을 하며 총동원하며 오는데 배길 수가 없어서 꽂거나오다가 총을 양 다리에 맞고 고꾸라져서 잡혔지요. 그 때 카빈을 갖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안전장치를 풀지 않고 사격을 했었습니다. 허허. 그때 3명이서 분산도주했는데 나중에 남원경찰서에 가 보니 다 잡혀왔더구만요. 잡힌 그 때를 말하자면 극심한 탄압을 피하여 52년 12월 당시 도당, 군당, 면당, 외곽단체 모두 33인, 5인조로 완전 분산해서 '완전비트'(적들 발이 닿지 않는 곳)로 들어가라는 결정서에 의거하여 삼봉산(1,187미터)에 파놓은 땅굴로 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 : 휴전 후 뱃치산이 포로교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요새 말들이 많습니다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포로교환 때 그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안 것은 광주포로수용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미군한테 잡힌 인민군만 포로교환이 되었대요. 대전감옥에서 이승만이 석방한 반공포로들 중 33명이 대전감옥 간수가 되어 가지고 53년 3월경에 파견되어 와서 알려주더군요. 포로교환이 되면 좋을 줄 믿고 있었는데 원망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정역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대한 원망은 아니었고 그건 뭐 '미국놈'들이 거부해서 못 해준다고 들었으니까 '미국놈'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 문 : 그런데 뱃치산의 하산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김일성 동지'가 남조선에서는 뱃치산 투쟁이 2년을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전부 도시, 농촌으로 하산하라고 하산명령을 내렸지만 하산을 못했지요. 왜냐면 각 지방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군경도 만나고 해서요. 물론 당시 정치노선은 옳았지만 입산한 사람들은 벌써 적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하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한참 그렇게 지시하다가 나중에 목살시켜 버렸는지 ……, 잘 모르겠습니다. 51년 9월쯤에 내가 본 그 결정서는 "산상주의를 배격하고 농촌, 도시로 진출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목살되어 버렸지요. '김일성 동지'의 얘기는 51년 8월쯤에 남부군에서 소대장을 함께 하며 내가 지리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박종팔이라는 운봉면 출신 동무한테 들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재판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 재판은 광주고등군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때 검사구형이 20년이었는데 소령 하나 중령 하나로 이루어진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뱃치산을 어떻게 욕을 해대던지; 그때 내가 아파서 (총상을 입은 양쪽 다리에 악을 못 구해서 호박벌브으로 총상구멍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책상을 탁 치면서 "다 너희 군경들이 한 짓이지 우리 뱃치산은 그런 일이 없다. 너희 군경들이 산의 여자를 잡으면 겁탈하고 국부에다 돌을 때려박아서 죽이고 그런 간악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놈들이 셈이 올라가지고 무기형을 때렸습니다. 20년이니까 10년 정도로 선고되었을텐데 …… 광주서 재판받고 그 뒤 광주감옥에서 사흘 자고 모래차에 엎혀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감옥에서는 독방생활을 하고, 뒷수정(수갑)을 여덟 달 동안이나 차기도 했습니다.

문 : 이제 선생님께서는 철창과 보호감찰로 한국전쟁 이후의 인생을 거의 세상과 절연되어 살아오신 셈인데, 뱃치산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모르지만, '김일성 동지'가 한라산 때와 같이 남반부에서의 뱃치산 투쟁은 2년을 계속 못한다고 그랬는데, 좌우간 2년 이상을 했으니까 참 영웅적으로 투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 동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산내면민들은 다 영웅적인 면민들이고, 뱃치산은 다 영웅들이다"라고 했었지요.

지리산에 묻혀 살지만 내 인생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남북통일이 되면 뱃치산 투쟁은 명백하게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

역사연구의 대중화와 새로운 역사인식의 정립을 위한 역사종합계간지

이 땅, 이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드는 잡지 「역사비평」  
많은 이들에게 꼭 알려야 할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자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서대문구 충정로2가 88-17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비평」편집실  
전화 : 312-4787